무선으로 스튜디오 모니터링을

AKG K361-BT / K371-BT

따뜻한 새 계절의 시작으로 설렘 가득한 때를 보냄이 마땅하거늘, 독자 분들도 알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도 새로운 시작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독자 분들도 오디오파이와 함께 좋아하는 음악 즐기면서 어려움을 함께 잘 돌파해 나가기를 바란다.

오스트리아의 음향명가 AKG에서 새 블루투스 헤드폰을 출시했다. 완벽한 새 모델이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좋은 가성비로 스튜디오 현장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인기를 끈 'K361'과 'K371'에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한 'K361-BT'와 'K371-BT'가 출시되며 마니아들을 관심을 끌고 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높은 성능과 블루투스 편의성 모두를 잡다

블루투스 = 편의성 / 유선 = 높은 음질 성능이라는 이분법적 담론에서 벗어나서 최근 음향기기 제품들은 어떻게 하면 무선으로 유선에 뒤지지 않는 음질을 재생시키냐에 상당히 많은 기술력을 동원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미 스튜디오 모니터링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AKG의 K361과 K371의 블루투스 버전들은 성능과 편의성이라는 양립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측면을 잘 잡아냈다고 평가할 만 하다. K361-BT와 K371-BT 두 제품 모두 밀폐형 오버이어 헤드폰으로 차음성이 뛰어나고 50mm 드라이버(K371은 티타늄 코팅)를 탑재했다.

보이스코일은 OFC 보이스 코일을 사용한다. 두 제품 모두 디테일하고 정밀한 사운드를 자연스럽고 균형 있게 재생할 수 있기에 뛰어난 가성비의 모니터링 헤드폰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블루투스 버전은 두 제품 모두 5.0 기반이다.

K361-BT와 K371-BT의 차이점은?

모델명의 높은 숫자에서 예상 가능하듯, K371-BT가 K361-BT가 소비자가격 기준 6만원 정도 비싸다. (테크데이타피에스 공식 홈페이지 기준) 그 외 두 제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구매를 원하는 독자들이라면 참고하자.

먼저 주파수 반응 대역의 차이가 있다. K361-BT는 15Hz~28kHz, K371-BT는 5Hz~40kHz로 K371-BT가 더 넓은 주파수 반응 대역을 보여준다. 두 제품 모두 가청 주파수대역보다는 넓은 대역을 재생해주기에 사용 목적에 따라 두 제품 사이에서 고민을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블루투스 지원 제품이기에 배터리 타임에도 관심이 많을 텐데, K361-BT는 1회 충전 기준 최대 24시간을, K371-BT는 최대 40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지원한다. 덕분에 K371-BT가 K361-BT보다 약 40g 가량 무겁다.

자료제공: ㈜테크데이타피에스

그 외 눈 여겨 볼 점은?

센서티비티와 임피던스는 두 제품 모두 동일하다. 센서티비티는 114dB SPL/1V @ 1kHz의 값을, 임피던스는 32옴이다.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유연하게 조절 가능한 헤드밴드와 프리미엄 이어패드 재질이 주는 푹신하고 편안한 착용감도 장점이며, 모션 컨트롤로 재생음악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마이크로 5핀형 충전형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점과 기존의 유선 모델인 K361과 K371에 비해 정말 'Literally'하게 블루투스 기능만이 추가된 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물론 모션 컨트롤이 추가되긴 했지만 음향 재생 성능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기존의 유선 모델의 성능이 워낙 괜찮았었기에 최신 블루투스 기능이 스펙적으로 추가 된 것은 분명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시장에는 좋은 음향적 성능을 지닌 무선 모니터링 제품이 그리 많지 않다. 그것도 합리적인 가격까지 책정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미 많은 이들에게 레퍼런스라는 단어의 대명사 브랜드 중 하나로 인식되는 AKG라면 이야기가 분명 다를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에게 이 두 제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을 약속한다.

Editor Jeongeun Song